

# 중세 데콜레테 (décolleté)의 유행에 소렐 (Sorel)이 미친 영향

남 윤 숙

부산여자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의류학과

## Influence of Sorel on the décolleté in the Middle Ages

Yoon Sook Nam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ollege of Natural Sciences, Pusan Women's University

(1996. 10. 14 접수)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research was influential in the fashionable décolleté of women's costume in the mid-15th century.

The results were as follow:

A variation of social environment and an aesthetic sense brought on desires to express human nature. Especially, the importance for costume of the appearance of a new spirit, confirmed and developed on the contemporary. The first symptoms of humanism were leaning towards secular art, an ideal of man at once more independent and avid for action, and an interesting applied to the individual and particularity. In addition, love affairs between the ladies and knights led to increasing interest in the beauty of weakness and tenderness in the women's body.

Sorel Agnès who was a lover of Charles VII, France king,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fashion of décolleté in women's costume. It was just a décolleté to express an ideal of beauty to neckline in women's dress in contemporary.

### I. 서 론

여성의 상반신은 남자에 비해 목이 가늘고 어깨폭이 좁으며 가슴에는 움기된 유방이 있고 또한 곡선이 많음으로서 다양한 입체성과 복잡한 조형성을 갖고 있다<sup>1)</sup>. 이러한 신체적 특징을 아름답게 나타낼 수 있도록 여자의 의복은 구성되는데 이중에서 목덜미나 어깨가 드러나도록 의복의 목둘레를 크게 하여 부식미의 한 요소인 에로틱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므로서 여자다움의 뉴앙스를 표출한 것이 데콜레테(décolleté)이다.

15세기 중엽, 폭기는 하이웨스트의 상체에 여윌게 긴 스커트로 된 의복이 유행되면서 최초로 패션화된 데콜레테는 이후 여자의 의복에서 에로티시즘을 강조하기 위한 전형적인 네크라인으로 이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데콜레테된 네크라인의 의복은 인체의 은폐를 특징으로 하는 중세의 의복 스타일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것이 패션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스타일의 의복을 앞서서 착용하는 인물 즉 패션 리더가 있어야 하는데 당시 이 역할을 한 여성이 바로 소렐 아녜스(Sorel, Agnès)이다.

소렐이 생존한 15세기 전반은 중세말기이면서 르네

상스가 태동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패션화된 데꿀메는 르네상스기에는 물론 그 이후 여러 세기에 걸쳐 여자의 의복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이용되어 왔다. 중세와 같은 시기에 새로운 유행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인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인체의 은폐를 특징으로 하는 당시의 복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은 인체에 대한 새로운 미의식이고 이것은 새로운 복식관으로 연결되어 그 결과 데꿀메가 패션화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복식사상 최초로 데꿀메가 유행할 수 있었던 요인에 관해 고찰하는 것은 의의있는 것이며 거기에는 소렐의 영향력이 큰 것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중세 데꿀메가 유행됨에 있어 소렐이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II. 외형미의 변화와 데꿀메

### 1. 중세 복식에서 데꿀메의 의의

특이한 조형성을 갖고 있는 여자의 상반신상에 위치하는 네크라인은 눈에 잘 띄는 얼굴에 인접해 있으므로 인체 장식의 초점이 되어 복식의 분위기를 결정한다.

목이나 어깨 또는 앞가슴이 드러나도록 네크라인을 넓게 한다는 의미<sup>2,3)</sup>의 데꿀메는 노출에 의해 신체의 에로틱한 부위를 강조하므로서 관능적이고 연약한 여성의미를 나타내는데 중세 당시의 이러한 노출은 오늘날의 데꿀메와 같은 의미의 섹시함 또는 에로티시즘과는 차이가 있지만 인체를 은폐하는 복장습관에서 벗어나 목과 가슴의 일부를 드러낸 당시의 데꿀메는 노출에 의한 에로티시즘 발전의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다.

15세기 중엽 데꿀메된 네크라인의 유행은 당시 긴 플레어스커트에 하이웨스트의 꼭끼는 상반신의 의복이 여자들간에 유행되므로서 가능했다. 여유있고 험렁할 때보다 상반신이 꼭끼는 의복일 때 데꿀메가 나타내고자 하는 관능미가 제대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꼭끼는 상반신의 의복은 십자군원정 이후 표출된 인간적인 즐거움을 찾으려는 기풍 즉 인간중심의 사고에서 비롯된 것인데 감각적 쾌락을 부정하여 인체를 수치심의 대상으로 생각한 기독교 중심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사고는 인체 그 자체를 하나의 표현의 장으로 봄과 동시에 외부와 내면세계를 매개하는 다시말하여 인간의 내적 체험을 밖으로 드러내 보이는 전달체제를 가진 사물<sup>4)</sup>로 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인간은 인체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것은 마치 고딕 건축내부가 스테인드 글라스로 된 창문을 통해 빛을 받아들임으로서 외부와 단절된 내부의 어둡고 답답함을 제거하는 동로의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이 중세 데꿀메의 네크라인은 기독교의 지배하에서 만들어진 위엄과 종교심을 강조하여 억압상태로 은폐되어야 했던 인체의 일부를 드러냄으로서 내재된 인간의 본성 즉 에로티시즘을 표출시킨 것으로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 2. 중세 복식 유행의 특징과 소렐

새로운 스타일의 의복을 앞장서서 입는 사람 즉 패션 리더에 의해 유행은 발생하고 발생된 유행을 상당수의 사람들이 모방함으로써 그 양식은 유행으로 성립된다. 이와같이 유행에는 시작하는 사람과 모방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이때 유행을 시작하는 사람이 자기가 부러워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일 경우 그 모방은 보다 확실하게 유행으로 나타날 것이다.

패션 리더는 각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중세와 같은 봉건체제하에서 유행의 창시자나 패션 리더는 王侯로서 최상의 경제적 위치와 사회계층에 속한 왕실 구성원의 의복은 형태나 소재, 색상이 화려하고 장식적이어서 그들이 최상의 위치에 있음이 의복을 통해 나타나기 마련이다.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복장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인간의 속성은 화려하고 장식적인 왕실의 복식을 귀족이 모방하고 귀족의 복장은 그보다 밀의 계층인 중류층에서 모방하는 식으로 하위층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사회계층의 복식을 모방하게 하므로서<sup>5)</sup> 중세와 같은 봉건체제하에서 유행은 퍼져나갔다. 이와같이 최상층인 왕실의 유행이 점차 그 밀의 계층으로 퍼져나가는 하향전파(trickle-down theory)의 방식이 중세의 복식유행의 특징이다.

중세 왕실의 멤버로 복식 유행을 리드한 소렐은 당시 데꿀메가 패션화되는 데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여성이다. 소렐이 어떤 배경에서 당시의 패션을 리드하는 위치에 있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422년 프랑스의 투렌(Touraine)의 프로망토(Fromenteau)에서 하급귀족의 딸로 태어난 소렐(Sorel, Agnès; 1422~1450)은 어렸을 프랑스의 국왕 샤르르(Charles) 7세의 처남인 앙주(Anjou)의 르네

(Rene)의 처로서 시실리(Sicily)의 여왕인 로렌(Lorraine)의 이자벨(Isabel)에게 보내어졌다. 이자벨을 섬기고 있던 소렐이 국왕 샤르르 7세를 처음 만난 것은 소렐이 22세 되던 1444년의 봄, 낭시(Nancy)의 궁전에서 열린 축제에서였는데 당시 국왕의 나이는 41세였다<sup>7-10</sup>.

22세의 한창인 나이의 소렐은 백조보다 흰 피부에 불꽃보다 붉고, 부드러운을 지녀서 봄에 피는 꽃에 비유될 정도로 눈부신 아름다움의 소유자였다<sup>11</sup>.

14세기 이래 15세기의 프랑스는 기근과 백년전쟁(1338~1453) 그리고 페스트(1384~1350, 1438년 재발)의 창궐 등으로 내우외환이 계속된 시기였다. 1422년 샤르르 7세(재위; 1422~1461)와 결혼한 왕비 마리는 당시 부덕의 표본이 되는 여인이었는데 연이은 왕자와 친족의 죽음으로 喪服과 産室에서 여생을 보낸다고 할 정도로 침잠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와같이 복잡한 상황으로 지쳐있던 왕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움 소렐을 만나는 순간 깊이 매혹되어 같은 해말(同年末), 소렐을 궁중에 들이고 재산과 성과 땅을 하사하여 왕비에 못지않은 지위와 명예를 확보해 주었는데 이것은 본부인이 아닌 정부로서의 소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프랑스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었다.

임궁한 소렐이 네번째 출산 직후 이질에 걸려 급사할 때까지 왕실구성원으로서 존재한 기간(1444~1450)은 얼마 안되지만 그동안 그녀에게 쏟은 왕의 전폭적인 사랑은 소렐로 하여금 왕비와 같은 권위와 화려한 삶을 누리게 하였다. 현란한 직물, 모피, 보석, 향수 등으로 곱고 화려하게 치장하고 왕의 각별한 총애를 받는 소렐의 아름다움은 가라앉아 있던 궁중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동시에 궁중을 유행의 장소로 만드는 데에 부족함이 없었다. 궁중에서 소렐이 패션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미모, 센스, 그리고 왕의 총애를 받는 여자라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지만 이에 우선하여 유행이 수용될 수 있도록 조성된 어떤 의식이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의식이라 함은 오랜 기간 익숙하게 받아들였던 복식의 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복식을 받아들일 수 있게 인체에 대해 변화된 의식을 의미한다.

### 3. 인체에 대한 의식의 변화

소렐이 생존했던 1400년대의 前半期는 십자군 원정

(1096~1291) 이후 중세사회가 전환되는 때로서 시적으로 새로운 유행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요인이 성숙되고 있었다.

십자군의 원정은 교황권의 실추, 왕권의 신장, 봉건 영주의 몰락, 동서교역의 확대 및 이슬람문화와의 교역을 촉진하는 등 정치 경제 사회전반에 걸쳐 중세사회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전유럽에 걸쳐 일어난 것인 만큼 그 결과는 큰 것이었다. 십자군 원정은 십자군에 직접 참여한 유럽인들은 물론 그들을 둘러싼 가족 및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직·간접으로 200여년이란 오랜 기간 동안 그리스, 오리엔트, 로마, 이슬람 등 여러 문화적 요소가 융합, 발전된 동방 문화에 접하고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것에 눈을 뜨게 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것은 복식에서 성 즉 에로틱한 면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복식에서 에로틱한 면이 강조되는 것은 십자군원정 이후 대두된 인체에 대한 자연주의에 기인하는 것으로 인체를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표현하는 자연주의적 경향은 의복을 몸에 꼭 끼게 하여 인체에 붙게 하거나 어느 특정부위를 과장하므로써 性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여자들은 전체적으로 신체를 날씬하고 가늘게 하고 네 크라인을 깊게 파서 속옷인 슈미즈의 네 크라인을 보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성 특유의 性的魅力을 적극적으로 발휘하였다<sup>12</sup>. 복장을 통해 性을 강조한 것은 그동안 금기시하던 인간의 본성을 드러낸 것으로 인체에 대한 자연주의적 사고가 확산되면서 이 경향은 더욱 확실하게 의복에 표현되게 되었다.

### 4. 기사도와 여성미

인체를 포함한 복식미 또는 외형미에 보다 직접적인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남녀간의 사랑인데 당시 상류여성들의 복장을 기사도와 연관시켜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중세 봉건 사회를 구성하는 세 요소 중 하나인 기사들은 전투를 중심으로 하는 만큼 용기와 尙武精神이 높이 평가되었고 이러한 기사정신은 시인들의 작품을 통해 이상화되어 기사의 생활이념이나 명예에 관념은 하나의 도의적 규범으로 확립되었다. 기사들은 그리스도교의 윤리에 의해 뒷받침되는 행위규범 즉 기사도를 지켜야 했는데 그중에는 허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덕과 함께

여성에 대한 봉사가 포함되었다<sup>13)</sup>. 그런데 이때의 허약자는 여성이고 이 여성은 귀족신분의 상류층 여성으로서 결과적으로 기사들이 보호하고 봉사해야 하는 약자는 상류층의 여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상류층 여성에 대한 기사들의 보호와 봉사는 여성에 대한 숭배사상을 낳았고 숭배사상의 밑바닥에는 연애감정이 잠재되어 있었기<sup>14)</sup> 때문에 이러한 관계는 더 나아가 귀부인들과 기사들의 궁정풍 연애로 발전하였다.

11세기 南佛에서 시작된 궁정풍 연애는 남자가 여자를 단번에 육체적으로 정복해 버리는 종래의 남녀관계와는 달리 여러가지 시련과 고뇌와 희망을 주는 가혹한 과정을 지난 후 비로써 남녀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결합되는 방식의 연애이다<sup>15,16)</sup>. 따라서 이러한 연애에서는 그 과정을 지나는 동안 상대방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함께 자신의 服裝美 또는 外形美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12세기 후반, '연애란 이성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라고 한 안드레(Andre le Chapelain)<sup>17)</sup>의 말은 시각을 통해 느끼는 상대방의 의상을 포함한 아름다운 자태의 중요함을 말하는 것으로 이성의 용모를 눈으로 확인해야 하는 연애의 당사자인 귀부인들과 기사들은 상호 호감을 주기 위해 자신의 신체와 의상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다 아름다운 자태를 지니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을 것이다.

남녀 상호간에 추구하는 아름다운 자태 즉 외형미의 기준은 의복형태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중세 여자들이 꼭끼는 하이웨스트에 데콜레된 넥라인의 상의를 입어 상반신의미를 나타내고자 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빈번했던 귀부인들과 기사들의 궁정풍 연애는 부드럽고 연약하기 때문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자와 그러한 여자를 보호하는 용감한 남자로서의 기사와의 관계에서 성립된다. 부드럽고 연약한 여성과 용감하고 씩씩한 남성은 중세 여자와 남자에게 요구되는 이상적인 상으로서 이것은 그대로 당시의 남자와 여자의 이상적인 미의 기준이 되었다.

당시 여자들에게 요구된 이와같이 제한된 미의 기준은 중세의 여자들로 하여금 부드럽고 연약한 여성상을 나타내기 위해 가늘고 날씬한 체형을 추구하게 하고 이것을 복장을 통해 외부로 나타낼 수 있도록 좁은 어깨와 빈약한 가슴의 하이웨스트로 된 꼭끼는 상반신에 긴 스커트로 구성되는 복장(사진 1)을 하게 하므로써 가늘

프고 부드러운 여성미를 나타내는 복식이 성립하게 된 것이다.



[사진 1] The young knight and his bride, 15C. The book of silk, p. 175.

한편 가늘프고 부드러운 여성미를 나타내는 복장스타일이 중세의 여러 궁중으로 전달되고 소개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여러 궁중을 출입하고 각지를 떠돌아 다니는 음유시인(troubadour)들의 역할이 컸다.

11세기부터 13세기에 걸쳐 프랑스의 남부, 스페인 동부, 이탈리아의 북부지방의 궁전을 이리저리 떠돌아 다니며 기사들의 연애사건을 읊어 노래하는 서정시인인 음유시인들은 다수가 귀족출신들이다. 이들이 노래한 시는 중세의 기사문학의 큰 즐거움을 이루고 있는데 주제, 내용, 형식이 풍부하고 다양하게 발달되어 대중에게 큰 호소력을 가졌다. 기사문학은 사회의 상층인 귀족들의 취향에 맞도록 작풍화되었으며 그중의 한 장르인 서정시는 아름다운 여인과 기사들의 사랑을 표현하여 작시하였다<sup>18)</sup>. 음유시인들은 기사들의 연애사건을 노래하는 가운데 기사들의 상대역인 여자들의 날씬한 신체와 아름다운 가슴에 대한 예찬과 함께 상체를 꼭끼게 하고 가슴과 허리선을 강조한 여자의 의복을 특징적으로 아름답게 묘사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인체에 의한

服裝美를 새롭게 인식시키고 전파하는 역할을 하였다. 다시 말하여 날씬하고 가냘픈 여자의 체형을 예찬한 기사들의 연애담은 궁중을 출입하고 떠돌아다니는 음유시인들에 의해 알려져 상류층은 물론 대중에게도 인기가 있었고 그 결과 연약한 분위기의 여자가 지니는 미를 이상적인 미로 인식하는 의식은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상에서와 같이 당시 빈번했던 귀부인들과 기사들간의 연애는 상호 인체를 포함한 복장미에 영향을 미쳤었고 변화된 복장미는 음유시인들에 의해 널리 퍼짐으로서 인체를 드러내는 새로운 스타일의 의복이 유행될 수 있는 기본이 되었고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소렐은 패션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5. 소렐의 데꿀메

[사진 2]의 두 여인이 곁에 입고 있는 문장복의 네크라인은 데꿀메되어 있으나 네크카바를 하여 목과 앞가슴부분의 직접적인 노출을 막고 있다. 당시 이러한 류의 의복은 인체의 노출을 금하는 기독교의 영향에 의한 것이지만 여자에게 연약함을 요구하는 미의식의 확산은 곧이어 데꿀메의 네크라인이 유행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사진 2] Luttrell Psalter, c. 1340.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p. 179.

목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와 데꿀메의 네크라인이 만들어 내는 복장미는 중세 당시 여자에게 요구하는 이상적인 복장미와 부합하고 있다. 목은 생명과 직접 연관되는 부위로 인체의 금소이기 때문에 맨목을 드러내놓는 것은 허약함의 상징으로 동정심을 유발<sup>19)</sup>하는데 목과 앞가슴을 노출한 네크라인의 의복을 입은 여성은

나약하고 부드러운 여성미를 발하므로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보호하고 봉사해주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는데 이것은 연약한 아름다움을 갖고 그 허약함을 보호해 주고자 하는 기사도 정신 또는 당시 요구되는 이상적인 여성의 미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체를 적약시하던 기독교의 영향으로 네크라인이 데꿀메된 처음부터 피부를 그대로 노출시키지는 못했더라도 오래 가지 않아 네크카바가 제거되고 곧이어 목과 앞가슴의 노출로 연계될 점임을 예측가능하게 하고 그 예측을 현실화시킨 인물이 바로 소렐이다.

[사진 3]은 의자에 앉아있는 샤르트르 VII세의妃인 마리왕비와 궁중여인들을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이 그려진 시기는 1445년으로 소렐이 왕을 만나 궁에 들어온 1444년과 거의 비슷한 시기이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궁중의 여인들은 모두 역삼각형으로 길게 만들어진 네크라인의 긴 로브를 입고 있는데 이러한 옷들은 당시 새롭게 유행되는 옷으로서 네크라인의 형태는 역삼각형의 긴 데꿀메로 이행되는 시기였다. [사진 4]



[사진 3] Queen Marie and courtly women, 1445. 3-10 ヲバ中世服飾史, 写本.

는 로제(Roger Van der Weyden; 1400~1464)가 그린 15세기 중엽 플랑드르의 상류여성의 초상화인데 이 여성은 역삼각형에 가깝게 길고 넓게 파인 네크라인을 하고 있으나 그 안에 옷감을 대어 가슴이 노출되지 않도록 가리고 있다. 네크라인의 형태는 같지 않지만 [사



[사진 4] Roger Van der Weyden, Portrait of a woman, 1433.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p. 208.



[사진 5] Petrus Christus, Portrait of a girl, 15C. 중엽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p. 208.

진 5]의 여자 역시 목과 앞가슴을 가리고 있다. 크리스투스(Petrus Christus)가 그린 이 그림은 소녀의 초상화로 그림을 자세히 보면 소녀의 양쪽 어깨 위에 흰색의 얇고 투명한 천이 걸쳐져서 드러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v字形으로 깊게 판 네크라인을 이 천으로 가리고 나머지 부분을 사진에서 볼 수 있는 흰색의 얇고 투명한 천으로 덮어서 직접적인 노출을 피하고 있다. [사진 6], [사진 7]의 여자들도 이와 비슷한 네크라인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꼭끼는 하이웨스트에 데폴메의 네크라인으로 된 상의와 후레아지게 넓은 스키프트로 구성된 로브는 당시 새롭게 나타난 유행이었다. 이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최신 유행인 의복의 네크라인은 역삼각형으로 데폴메되어 있고 그로 인해 드러난 목과 앞가슴을 네크카바로 가리는 것이 보편적인 차림이었는데 소렐은 네크카바를 제거하고<sup>20)</sup> 네크라인의 파임을 더욱 깊게하여 하이웨스트에 이르는 v字形의 네크라인의 끝을 검정 벨벳과 같은 진한 색의 천으로 살짝 가렸다. 네크라인의 끝을 살짝 가린 진한 색의 이 벨벳은 v字形의 네크라인을 네모꼴로 보이는 효과를 내었고 동시에 그것은 소렐의 흰 피부와 조화되어 그녀의 용모를 더욱 빛나게 하였다.

[사진 8]은 샤르르 VII세의 화가인 후케(Jean Fouquet; 1420~1481)가 그린 聖母子像인데 소렐의 死後



[사진 6] Roman de la Violette, 15C. 중엽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p. 208.



[사진 7] Roman de la Violette, 15C. 중엽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p. 208.

렐을 잘 아는 후케는 날씬하고 가는 허리 위에서 왼쪽 유방을 드러내놓고 투명할 정도로 흰 피부의 가슴과 목을 노출시키고 있는 소렐을 그리고 있다. 이 그림은 소렐의 死後인 1480년에 그려진 것으로<sup>21)</sup> 그녀의 생존시의 의복과 차이가 있고 화가의 주관에 개입되었을 것임을 가정하더라도 그림 속의 소렐의 의복은 그림이 그려진 시기의 여자의복에 대한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소렐의 死後 30년이 경과한 시기의 여성복의 네크라인이 더욱 대담한 형태로 진전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소렐의 사후에도 데플메는 계속 유행되어 다음 세기인 르네상스기로 계승 발전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새롭게 유행되는 데플메의 의복을 왕실 멤버인 소렐이 앞서서 착용하는 것에 대해 보수적인 高位職의 성직자나 지식인들은 데플메의 네크라인이 대담하고 도발적이고 퇴폐적이며 관능적인 것이라고 많은 비난을 하였지만 이 비난은 오히려 그녀의 멋의 특징과 혁신성을 확실하게 한 결과를 낳아 그녀를 추종하는 여성들은 물론 비난하는 여성들까지도 모방하므로써 데플메의 네크라인은 유행으로 성립하게 되었다.

### III. 걸어 및 논의

데플메의 네크라인은 복식사상 15세기 중엽 최초로 패션화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에로티시즘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네크라인으로 정착, 활용되고 있다.

데플메의 네크라인이 유행되는 데에 있어서 소렐이 리더의 역할을 한 것은 십자군 원정 이후 인체를 새로운 측면에서 보게된 의식의 변화가 바탕이 되었고 출중 한 미를 소유한 소렐이 자신의 관능미를 최대한 나타낼 수 있는 자유롭고 적극적인 정신을 가졌으며 왕비에 못지않은 권세와 부를 누린 왕의 애첩이라는 궁정에서의 위치와 세련된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소렐이 생존했던 1400년대 전반기는 중세말기로 다음 세기인 르네상스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인데 이러한 시기에 소렐이 패션 리더로서 데플메의 유행을 이끈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중세말기 이래 여러 세기에 걸쳐 여자 의복에서 네크라인의 주류는 데플메로서 시기에 따라 그 형태 및 크기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관능미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네크라인이고 또한 여러 세기에 걸쳐 연속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사진 8] Jean Fouquet, Virgin and child, 1480.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p. 205.

그녀를 기리기 위해 그린 이 그림에서 소렐을 성모상의 모델로 하였다. 샤르르 VII세의 궁정화가로서 생전의 소

오늘날까지도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것이 성립 가능하도록 그 기틀을 만든 패션 리더로서의 소렐이 갖는 의의는 큰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深作光貞, 見馬場 記子, 人體と裝い 7, 衣生活研究 11, 8, p. 10.
- 2) 深作光貞, 見馬場, 前掲書, p. 12.
- 3) 石山彰, 服飾辭典, タビイット社, 1972.
- 4) 이운동, 누드미술의 변천과 계보에 관한 연구, 흥대 대학원, 1985, p. 17.
- 5) 강혜원, 의상사회심리학, 교문사, 1987, pp. 155-158.
- 6) 이인자, 복식사회심리학, 수학사, 1984, pp. 121-122.
- 7) 브리태니커 세계대백과사전 11.12, 브리태니커, 동아 일보, 1993.
- 8) 세계대백과사전 5.10, 학원사, 1993.
- 9) 西洋人名辭典, 岩波書店, 1981.
- 10) The New Encyclopedia of Britanica 11, 1988.
- 11) 篠原たつ子, アニエス・ソレルとローブ・デコルテ, 服裝文化 No. 175, 服裝文化協會, p. 53.
- 12) 能澤慧子, モードの社會史, 有斐閣選書, 1991, pp. 15-29.
- 13) 차하순, 서양사총론, 탐구당, 1989, pp. 160-163.
- 14) 학원세계대백과사전, p. 248.
- 15) 能澤慧子, 前掲書, p. 30.
- 16) 한정숙 역(마크발로크), 봉건사회, 한길사, 1986, pp. 52-54.
- 17) Andre le Chapelin: 중세 궁정풍연애의 기법이나 규칙을 다룬 궁정풍연애의 지침서라고 하는 戀愛法典 (Tractus Amoris)의 저자.
- 18) 차하순, 전계서, pp. 220-223.
- 19) 장문호, 복식미학, 세운문화사, 1975, p. 86.
- 20) 篠原たつ子, 前掲書, p. 57.
- 21) Francois Boucher,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Thames & Hudson, 1987, p. 205.
- 22) 김경옥, 의복의 노출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1983.
- 23) 김영자, 한국복식미의 연구, 세종대대학원, 1989.
- 24) 김혜연, 중세말기(14~15세기) 회화를 통한 복식 연구, 복식 13.
- 25) 김혜연, 중세말기(15~16세기 초) 회화를 통한 복식 연구, 복식 17.
- 26) 김혜연, 프랑스 14, 15세기 회화에 표현된 복식의 미적고찰, 복식 22.
- 27) 류기주, 김민자, 인체에 대한 미의식에 따른 복식형태, 한국의류학회지, 16.4.
- 28) 신상옥, 서양복식사, 수학사, 1996.
- 29) 이정옥, 권미정, 에로티시즘적 분위기 표현에 따른 의상디자인의 형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0.1.
- 30) 이효진, 현대패션에 나타난 Eroticism에 관한 연구, 복식 23.
- 31) 菅生ふさ代, 西歐ゴシック期の服飾, 文化女大研究紀要 2集, 1970.
- 32) 德井淑子, ロマン・クルトワの服飾描寫, 服飾美學, 昭和 53.
- 33) 보어, 라크로와(鶴野千鶴 譯),ヨーロッパ中世服飾, 臨川書店, 1990.
- 34) 小林啓, 服飾にみるゴシック, 服飾美學 2, 昭和 47.
- 35) 深作光貞, 見馬場 記子, 人體と裝い 8, 衣生活研究 11, 9.10.
- 36) Lucy Barton, Historic costume for the stage, Walter H. Baker, 1963.
- 37) Milla Davenport, The book of costume, Crown, 1948.
- 38) Philippa Scott, The book of silk, Thames & Hudson, 1993.
- 39) Webster's Biographical Dictionary, G. & C. Merriam Company, 1980.